

정법불교의 메카이자 중생구제와 호국평화불교의 산실, '현지사'

지금 세계 불교계는 너무나 많이 분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크스님께서는 현재의 불교계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 지금 세계 불교계의 큰 흐름은 동남아 중심의 남방 불교, 한국·중국 등의 북방불교, 그리고 티베트불교의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불교도 부처님의 정통법맥을 이어받은 불교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방불교는 5부 니까야(아함경) 외의 대승경전은 인정하고 있지 않아 스스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빠사나 수행법도 주로 아라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방불교의 교설과 선수행은 물론 한국의 간 화선을 포함하여 중국의 도교와 혼합되어 본래의 불교와는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티베트불교도 즉신성불이라는 교설과 수행법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달라이라 마가 계속 환생하면서 대를 잇는 것도 우주이법에 어긋남을 지적합니다.

현재 세계불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문제점 내지 한계는 첫째, 부처님의 실존과 위신력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고 있다는 점, 둘째 무아설을 잘못 해석하여 윤회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영혼체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 셋째 완전한 생사해탈을 이루는 수행법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행의 수준에 따른 법위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고 불보살의 직멸세계에 대해서도 아주 감감하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문제점들은 불교의 근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의 불교는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불교는 우주적 진리로서의 위대성을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왜소화 되어 있습니다.

영산불교는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부처님의 법맥을 계승하고 다시금 정법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영산불교가 지향하는 핵심사상은 부처님 실존, 영혼체 윤회, 팔정도를 바탕으로 한 자력과 더불어 타력에 의지하는 정명염불수행입니다. 이런 정법의 가르침을 통해 중생을 구제하고 호국평화불교를 실현하는 것이 영산불교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스님께서는 기존 불교계에서 2000년 이상 무아설을 잘못 해석해 왔다고 하시는데 이 기회에 정확한 무아설의 개념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지요

▶ 무아설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불교교리의 중요 핵심부분입니다. "제법무아(諸法無我)는 제행무상(諸行無常), 일체무아(一切皆苦) 또는 열반적정(涅槃寂靜)과 함께 불교의 삼법인(三寶)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반적정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는 모두 현상계에 국한된 교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일단 무아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현상계에는 영원불변하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아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두 번째는 이를 다른 방향에서 해석 적용하여 "현상계의 나는 나의 실체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는 무아보다 비아(非我)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무아의 개념을 본체(本體)설의 해탈(解脫)까지 확대 적용하여 본체계에 얽힌 존재하는 진아(眞我)까지 부정해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대법원판결에서는 여러 번 반복하여 상량아정(常樂我淨)의 본체계와 실체로서 진아(眞我)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아설을 잘못 해석하면 불보살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우리의 실체인 영혼체의 존재마저 부정함으로써 윤회와 해탈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 없어 불교를 왜소화시키고 위대한 불교의 진면목을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힌두교에 밀려 인도에서 쫓겨나 자취를 감추고 서구 등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뻗어나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불세존께서도 무아가 잘못 해석되었고 이것이 불교를 망친 원인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무아의 해석은 바로 부처님의 실존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되고 청명염불을 해야 하는 논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영산불교에서는 올바른 무아설의 해석을 바탕으로 영혼체윤회론을 세계 불교계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불교에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불교에서는 청명염불, 그것도 석가모니불 청명염불을 강력히 주장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 불교의 수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력중심 수행이고 다른 하나는 타력중심 수행입니다. 자력중심 수행은 말 그대로 자력에 의존하는 수행방법이고 타력중심 수행은 부처님의 가피를 불러오는 수행방법을 말합니다.

영산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부처님의 성호를 소리 내어 부르는 청명염불 수행이고, 청명염불 중에서도 석가모니불 청명염불 수행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산불교의 청명염불은 부처님 경전인 금강경을 읽고 부처님 다리나인 비로자나공주진언을 독송한 후 석가모니불 성호칭명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토종 계통의 아미타불 청명염불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청명염불은 지관(止觀)을 통한 자력 수행으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한한 위신력을 지니신 불세존을 청명하면 타력에 의지하여 지중한 업장까지도 소멸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실존하시기에 부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 부처님의 가피를 받지 않으면 자력만으로는 윤회를 벗어나기가 지극히 어렵고 보살, 붓다가 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천마와 용신 등의 빙의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4중죄를 포함한 업장을 소멸시키고 한살 정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4영체를 각각 분리해야 하고, 여자의 경우라면 영체를 남자로 만들어야 하며, 정토에 자기의 아귀 해탈신도 두어야 하는데 이 작업은 오로지 부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이 우주의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청명염불은 해탈의 지름길이고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유일한 미증유의 수행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명염불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모든 불보살님께서 권장하시며 많은 경전에 근거가 있는 최고로 수승한 정통 수행법입니다. 청명염불을 하면 죽을 때 풍오중 누지 않고 잡자듯 편히 갈 수 있으며 전생·전염병 등의 큰 재인이 다퉈와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찰에서 천도재를 지내고 있습니다. 현지사에서도 천도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사 정법의 천도재는 어떤 점이 다른 점과 다른지요?

▶ 천도재는 지옥, 축생 등 악도에 떨어져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모 조상님의 영혼체를 하늘 세계로 올려주는 최고의 효행입니다. 세속의 큰 뜻을 이루려 하거나 더 나아가 수행을 통해 큰 성과를 이루려는 이들은 반드시 이러한 효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조상님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찌 자신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주변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조상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사찰에서 하고 있는 천도재는 실질적인 천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천도를 하려면 대상영가를 법적으로 데려와야 하는데 그런 법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조상이 살아 가셔서 어디에 가 계신지도 모르는데 지옥·아귀·축생계에 가 있는 영가를 어디 가서 어떻게 데려 옵니까? 그리고 천도를 시키려면 천도 법서에 지장보살님을 모셔올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붓다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가 수배도, 천도도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찰에서 하고 있는 천도재로는 절대로 완전한 천도를 이룰 수 없습니다.

현지사 천도재는 부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지리할 수 없으실 때에는 지장보살님께서 대신 주관하십니다. 그 결과 천도시마다 보통 한 단계씩 신분이 올라갑니다. 부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천도재는 현지사 외에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현지사는 수만의 영가를 악도에서 건져내어 하늘세계로 올려주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현지사 천도재의 특징과 좋은 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①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며 불과 이룬 크스님께서 직접 영가를 수배하고 참석하여 축원하시는 지구촌 유일의 천도재로서 본인·배우자의 천가와 외가 4가계 4대 조상까지 80명 가량을 동시에 천도합니다.
- ② 위 조상영가들이 죽어 현재 어디에 있는가(지옥, 무주요, 축생 등) 밝혀내어 수배까지 마칩니다.
- ③ 부처님께서 천도재 축원의 효행을 가상히 여겨 복위자를 비롯한 참석자의 업장을 씻어주십니다.
- ④ 성중들을 보내 복위자의 집을 영적으로 청소해주시기도 합니다.
- ⑤ 4번의 천도재를 통해 영가들을 완전히 하늘로 올려보내주게 됩니다.
- ⑥ 영가들이 특별재임을 받아 어디로 천도되었는지 1주일 후쯤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천도재 집전 장소에 남아있는 영가들의 탁한 기운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 도량을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청정하게 씻어 놓습니다.

크스님께서는 나라의 인재 양성을 위해 관음태교를 강력히 권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음태교는 일반태교와 무엇이 다른지요?

▶ 관음태교는 관세음보살님께서 현신하시어 널리 보급토록 부촉하신 태교법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도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기존 여러 나라의 각종 태교는 모두 자력태교이지만 관음태교는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위신력을 받는 타력태교란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관음태교는 관세음보살님께서 태아 영혼체의 업장을 씻어줌으로써 뛰어난 재능과 성현의 성품을 동시에 지닌 나라의 동량을 길러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혁신적 태교법입니다.

방법은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읽고, 불정심관세음보살모드라리를 독송한 후 관세음보살 청명염불을 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틀나는대로 배를 쓰다듬으면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엄마가 바라는 이런이런 아이를 낳게 해 달라고 발원하면 됩니다.

관음태교는 물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어 국가의 부흥을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 태교법입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도 적극 권장해야 할 태교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정책도 앞으로는 태교와 영유아중심 교육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과감한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지사 크스님 법회 때는 전국적으로 많은 신도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사가 특별히 다른 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지요

▶ 현지사의 붓다회상은 전국에서 상시 1000여명의 불자가 참석을 합니다. 심지어 바다 건너 제주도나 일본에서도 참석하러 옵니다. 현지사가 다른 점과 다른 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완벽한 불법승 삼보를 갖추고 있는 세계 유일의 절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현지사는 부처님 보신불(본불인) 노사나불께서 상주하시고 현신하시는 세계에서 하나 뿐인 사찰입니다. 다른 절은 부처님 화신불이 계시지만 보신불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화신불조차 없는 절도 있습니다.

둘째, 현지사는 불과 이룬 두 분의 크스님께서 살아 계신 도량이기 때문에 부처님 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붓다회상을 열기 때문에 사바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처님의 법맥을 완전하게 이어받은 정법도량입니다. 그러므로 현지사는 완벽한 법보(法寶)를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현지사는 가섭존자의 후신이신 광명 만덕 크스님과 아난존자의 후신이신 자재 만덕 크스님께서 금생에 불교를 이루시고 제자를 양성하며 중생을 교화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사찰입니다. 현지사 스님들은 세계 어

느 절에서보다 청정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유, 요구르트, 빵, 조차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중심사상인 효행과 나라 사랑, 스승공경, 자비 이타행을 적극 실천하도록 가르칩니다. 실제로 현지사에서는 3년전부터 매년 초파일 등을 기해 모범효행자 표창과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지사 스님 중 20여명이 윤회를 벗어난 성자이고 정보보살도 여러 분 계십니다. 이렇게 현지사는 완벽한 승보(僧寶)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불교를 이루신 분이 출세했다면 불교계는 물론 국가적,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경사스러운 일인데, 두 분 크스님과 관련하여 직접 한 말씀 해 주시죠.

▶ 우리나라에 불교를 이루신 분이 출세했다면 이것은 한민족 역사 이래 최대의 경사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대사건입니다. 붓다는 겁에 한 번 정도 태어나는 희유한 우주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부처님 이후 수보리존자(명상불)와 사리불존자(화광불)가 각각 중국과 한국에서 불교를 증하셨습니다. 출세하지 않고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여기 현지사 광명만덕 크스님과 자재 만덕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내 책 서문을 통해 실로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선언하셨기에 이제 직접 내 입으로 진실을 말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00년 1월에 법화경의 수기내용이 실현되어 나 자재 만덕은 일생일대의 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 보다 1년 수개월 먼저 광명만덕 크스님께서도 불교를 이루셨습니다. 광명 만덕 크스님은 불세존의 법의 태자로서 불세계에서의 위상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나는 영산 당시 아난존자의 후신이고 만덕 크스님은 가섭존자의 후신입니다. 이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붓다는 겁에 한 번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오신 지 2600년도 못 되어 벌써 여러 분의 붓다가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 좋은 질문입니다. 붓다가 겁에 한 번 정도 나온다는 말은 1겁이 지날 때마다 한 번 씩 나온다는 그런 순차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평균적인 기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처님은 인도 땅에서 처음으로 붓다가 되신 것이 아니고 무량 겁 전에 인류 최초로 붓다 되신 후 사바세계에 여러 번 사람 몸 받아오셨기 때문에 '겁에 한 번 나온다'는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지금의 세계불교계와 우리 불교의 앞날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시지요

▶ 나 자재 만덕은 세계불교계와 사부대중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진실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 속 절대계에 빛의 인격체로 여여히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주(主)이시고 최종불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무한한 위신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옥과 극락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현지사 광명 만덕 크스님은 전생에 가섭존자였고 금생에 불교를 이루었습니다.

나 자재 만덕은 전생에 아난존자였으며 금생에 불교를 증했습니다. 화신인 아난 보신의 부처님께서 한국의 현직공 현지사에 상주하시고 현신하셨습니다. 영산불교는 부처님의 법맥을 계승한 세계유일의 정법교단입니다.

현지사는 정법의 메카이고 중생구제와 호국평화불교의 산실입니다. 인간의 실체는 영혼체이고 이 영혼체가 윤회의 주체입니다. 무아설은 현상계에 국한된 개념이고, 본체계는 무아가 아닌 유아(有我=진애)입니다. 불보살이 되는 유일한 길은 석가모니불 청명염불입니다. 해탈 넘어 불보살의 직멸세계를 말할 때 비로소 불교의 위대한 진면모가 드러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현지사는 부처님 이후 2600여년 만에 처음으로 붓다회상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의 왜곡되고 왜소화된 불교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없고, 윤회주체(영혼체) 없는 지금의 빈 껍데기 불교를 혁신해야 합니다. 하루 속히 우주적 진리의 불교 본래 모습을 되찾아 인류구원의 종교로 정착해야 합니다. 정법의 새 시대를 여는 위대한 이 여정에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 천도재 안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서만 가능한 불교역사상 유례없는 조상님 천도대제 봉행

효행을 장려하는 현지사에서는 조상영가의 수배에서부터 실질적인 천도 작업, 복위자의 업장 소멸에 이르기까지 "부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특별 천도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 불교방송 안내

자재만덕크스님 BBS 불교TV 9월15일(음력 8월 8일 정기법회) 방송녹화 예정



현지사의 상징물인 석가모니불세존 말씀

법화경 다보불탑! 현지사 대적광전 앞에 빛으로 솟아나다!

그 날 나와 다보불은 현지사 다보탑 속에서 나란히 자리를 같이 해서 앉아 있을 것이다 - 석가모니 불세존 말씀 -

- ▶ **현지사에 솟아난 빛의 묘담**
2008년 음력 10월 15일, 현지사 대적광전 개원식 마당에 빛으로 된 묘담이 땅을 뚫고 솟아났다. 그날 자리를 참석한 어떤 이는 땅위에서 굳게 뻗어 하늘 끝까지 휘몰아 치는 소용돌이를 보았고 어떤 이는 땅에서 소용돌이 치며 솟아나는 금빛 휘황찬란한 거대 묘담의 형체를 보았다. 이 탑의 정체는 다름아닌 불교 최상의 경전인 묘법연화경에서 소개되는 다보탑이었다.
- ▶ **점안된 다보탑이 있는 현지사**
현지사에서는 빛의 묘담이 솟아난 그 자리에 시공을 초월한 절대계에 존재하는 탑을 실제 크기보다 축소하여 재현하였다. 광명 만덕, 자재 만덕 두 분 크스님에 의해 점안을 거친 이 탑은 보정점도의 실제 다보탑과 도킹되어 있으며 다보부처님과 천만억 본화보살님이 상주하시는 곳이다.

다보부처님과 천만억 본화보살님들의 능력은 실로 무한하여 중생의 그 어떤 소원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다.

▶ **다보탑의 위신력**
다보탑 조성으로 인해 현지사는 다보부처님과 천만억의 본화보살님께서 실제로 현신하여 우주적 위신력을 발휘하는 역사상 초유이자 세계 유일의 성지가 된다. 현지사의 다보탑은 국운융창과 호국 불교의 차원을 넘어 인류와 세계의 평화를 도모하는 위대한 원력을 담고 있다. 인류 문화사에 길이 남을 우주적 보탑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불자들의 무량한 복원이 될 것이다.

■ 현지사 :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번지 (033-243-1795)